

스티븐 킹, 인생 영화 10편 공개 '카사블랑카' '대부2' '쥬스' 등 꼽아... "내 작품은 제외"

미국의 대표적 호러 소설가 스티븐 킹이 자신의 최고 애정작 영화 10편을 공개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수많은 할리우드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킹은 "내 작품 각색 영화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SNS를 통해 순서와 상관없이 리스트를 공유했다.



▲스티븐 킹, 사진=stephenking.com

이번 명단에는 윌리엄 프리드킨,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마틴 스코세이지, 빌리 와일더, 스티븐 스필버그 등 거장 감독들의 작품이 포함됐으며, 험프리 보가트, 리처드 드레이퍼스, 로버트 드니로가 각각 두 작품에서 주연을 맡은 점도 눈길을 끈다. 킹이 20대 시절이던 1970년대의 고전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리스트는 1977년 개봉 당시 흥행과 흥행 실패를 겪었으나 이후 재평가된 프리드킨 감독의 '소서러'로 시작한다. 이어 아카데미 6관왕에 오른 '대부2', 스티브 맥퀸과 알리 맥그로가 출연한 1972년작 '갯어웨이'가 포함됐다. 의외의 선택으로는 빌 머레이와 앤디 맥도웰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사랑의 블랙홀(Groundhog Day)이 꼽혔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보가트·잉그리드 버그먼 주연의 고전 '카사블랑카', 존 휴스턴의 서부극 '시에라 마드레의 보물' (1948), 빌리 와일더의 필름 누아르 '이중 배상' (1944)도 리스트에 올랐다. 스필버그의 '쥬스'와 '미지와 조우', 스코세이지와 드니로의 첫 협업작 '비열한 거리' 역시 포함됐다.

흥미로운 점은 리스트의 절반 이상이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것이다. '소서러', '대부', '갯어웨이', '시에라 마드레의 보물', '쥬스', '이중 배상' 등이 이에 해당하며, '미지와 조우'는 영화와 동시에 소설권이 발간됐다.

킹은 이번 목록에서 자신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 4편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롭 라이너 감독의 '미저리'와 스탠 바이미,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그린 마일'과 '쇼생크 탈출'이 그것이다. 그가 공개적으로 혹평했던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 역시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공포 장르의 상징적인 작품인 '캐리'의 부재도 팬들에게는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쥬스' 1분 출연 배우, 팬 미팅 1번에 1만불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쥬스가 개봉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단 1분간 출연했던 배우가 여전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



▲ 제프리 부어히스, 사진=mvtimes.com

배우 제프리 부어히스(62)는 영화 속에서 상어에 희생당하는 소년 알렉스 킨트너 역으로 출연했다. 그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짧은 장면이지만 이제는 팬 행사 덕분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부어히스는 처음에는 팬 행사 초청을 거절했지만, 한 번 참여한 뒤 수익성과 팬들의 반응에 놀라 계속 활동하게 됐다. 그는 "뉴욕에서 열린 첫 행사에서 공항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행사에서 꽤 좋은 수입을 올렸다"며 "세계 각국을 다니며 진짜 배우들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 행사 출연만으로 회당 약 1만 달러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쥬스 관련 기념품도 판

매하고 있다. 상어 이빨 자국이 있는 튜브(289달러), 포스터(35달러), 티셔츠(45~70달러) 등이 인기 품목이다.

레스토랑 업계에서 일하다 은퇴한 그는 "이제는 쥬스 관련 수익이 더 많아 사실상 은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팬들에게 알아보는 경험을 하며, 심지어 14세 소녀가 부모와 5시간을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만났던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내가 영화에 나온 건 단 1분이지만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팬 행사는 부어히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워킹데드'의 노먼 리더스, '스타워즈'의 마크 해밀, '닥터 후'의 맷 스미스 등 유명 배우들도 팬 행사에서 주말 동안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스티븐 아벨레로우는 "매주 행사에 참가하면 드라마 출연료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며 아예 팬 행사 전문 에이전시를 설립하기도 했다.

웨스트포인트 졸업생협회 톰헝크스 시상 행사 취소



▲ 톰 헝크스, 사진=AP/연합뉴스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이 톰 헝크스에 주기로 한 '실바너스 세이어상' 수여식이 취소됐다.

웨스트포인트 졸업생협회는 지난 6월 헝크스가 미군을 연기한 영화들과 워싱턴 D.C. 내 제2차 세계대전 기념관 건립 활동, 자신의 커피 브랜드 'HANKS for Our Troops'를 통한 참전용사 지원 공로를 인정해 올해 '실바너스 세이어상' 수상자로 선정했었다. 이 상은 '의무, 명예, 조국'의 가치를 구현한 모범적인 시민에게 수여된다.

당초 헝크스의 시상식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웨스트포인트 졸업생협회 마크 비거 회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메일에서 "사관학교가 미국 육군 장교 양성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졸업생협회나 헝크스 측은 이번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헝크스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포레스트 검프' 등에서 군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루스 소셜'에 헝크스를 "각성(woke)된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시상식 취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날말퍼즐 정답 | | | | | | | | | |
|---------|---|----|----|---|----|----|----|----|---|
| 1 | 도 | 청 | 2 | 뒗 | 덜 | 3 | 미 | | |
| | 리 | | | 조 | | 4 | 소 | 5 | 권 |
| | | | 6 | 한 | 사 | 7 | 군 | | 통 |
| 8 | 리 | 9 | 본 | | | 10 | 살 | 코 | 기 |
| | | 11 | 방 | 랑 | 12 | 자 | | 13 | 한 |
| | | | 사 | | 15 | 네 | 16 | 티 | 즌 |
| 17 | 필 | 수 | 18 | 품 | | 머 | | | 가 |
| | | | 19 | 바 | 구 | 니 | | 20 | 응 |
| | | | | | | | | | 시 |

PREMIER TAX GROUP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JUNGHOOON KIM
 E.9923003@gmail.com
 C.714.335.8256
 카톡 ID: Junghoon123

프리미어 텍스 그룹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